

나의 고향북한에 아까시나무를 보내며

이경준교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교수, 한국임학회장)



* 사진 : 헝가리의 "아까시나무 미림", 1997년

나의 고향은 북한이다. 선친의 고향은 황해도,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다. 나는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해인 1945년 봄 청진(淸津)에서 태어나 백일이 될 때 서울로 이사해서 줄곧 서울에서 자랐으므로 북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도 내 뿌리가 북한이니 평생 북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다. 북한에서 식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산림이 극도로 황폐해 지고 있다는 소식은 내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한다.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은 안타까움, 바램, 사랑, 미움이 한데 뒤섞여 매우 복잡한 내

면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애써 북한을 외면해오고 있던 나에게 새로운 계기가 생겼다. 작년 과학기술부로부터 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비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년 처음으로 금강산 근처에 있는 강원도 고성군을 방문하여 북한 산림의 현황을 직접 보았다. 금강산 근처의 야산이 풀 한포기 없는 데 마르고 황량한 상태로 버려져 있는 처참한 광경은 나로 하여금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우리 남한의 햇빛은 산야를 연상케 했다. 당시 참혹한 한국전쟁이 끝난 후 뼈를 깎는 가난과 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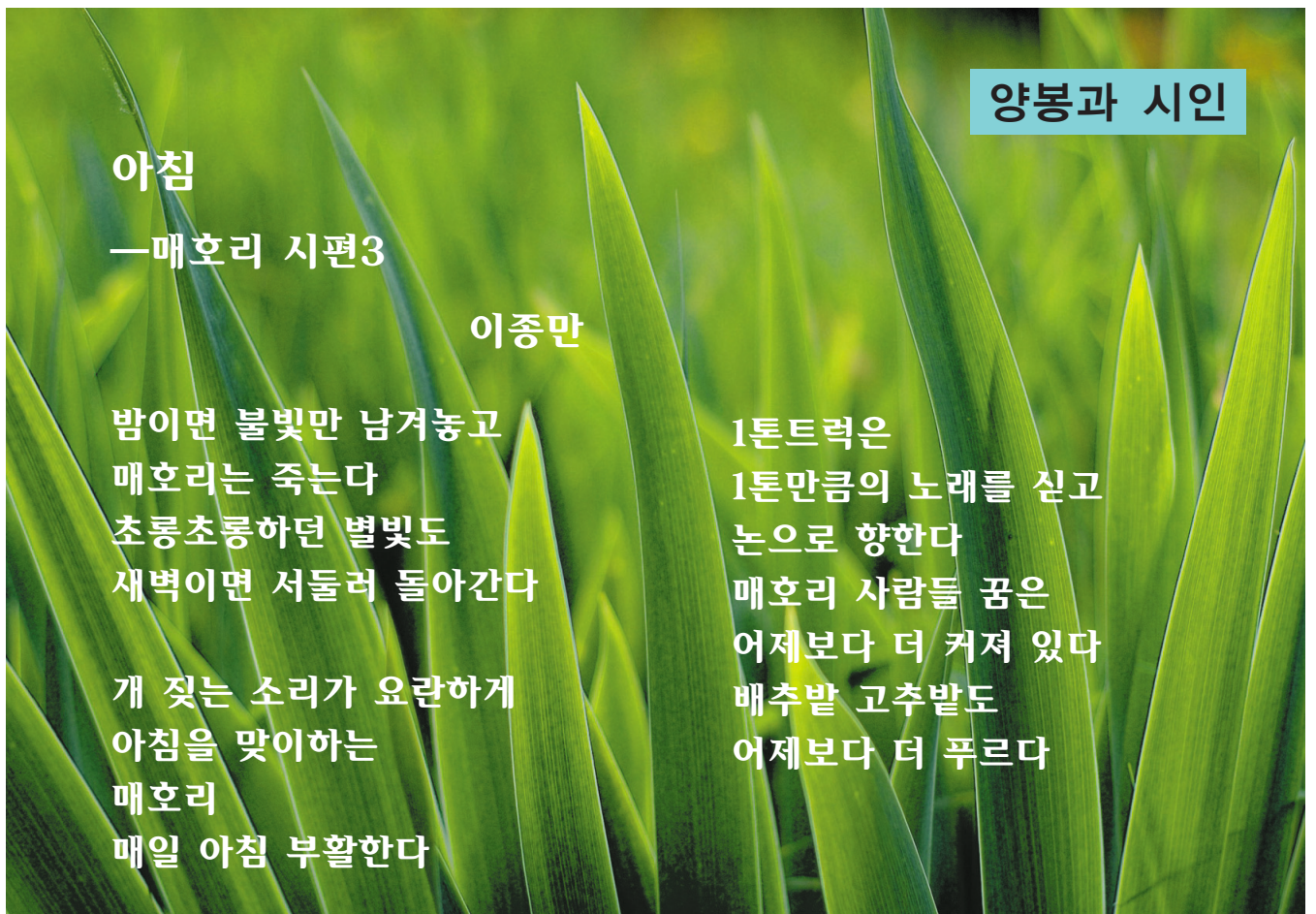
로 황폐한 산림을 앞에 놓고, 나와 나의 부모 세대는 기나긴 암울하고 삭막한 시기를 경험하였다.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 남들은 그저 아름다운 금강산을 관광하러 온다는데, 나는 지금 왜 여기를 찾아와서 민둥산을 보고 가슴앓이를 하는 것일까? 그러나 산림과학(山林科學)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이미 푸르러진 남한의 산림에 만족하지 않고, 북한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해방의 혼돈기와 한국전쟁 이후 극도로 황폐했던 산림은 1970년대 적극적으로 복구되어 우리는 이제 금수강산의 옛 모습을 되찾았다. UN 산하기구인 FAO(식량농업기구)는 1982년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한국의 산림녹화 사업을 극찬했다. 또한 World Watch Institute를 창설한 Lester Brown씨도 한국의 산림녹화를 본받으라고 2002년 그의 책 “Plan B”에 기록한 바 있다. UN의 보고가 있는 지 2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선언은 유효하다고 할 만큼 개발도상국의 산림녹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 발전보다 더 어렵다. 지난 날 한국의 성공적인 녹화사업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한 선배 임업인의 지혜였다. 한국의 기후는 여름에만 비가 오고 봄과 가을에는 건조해지는 대륙성 기후이며, 산림 토양은 화강암에서 기원하여 양분이 없고 쉽게 부서져 내리는 열악한 상태였다. 이렇게 물과 양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번 산림이 파괴되면, 나무를 심어도 뿌리가 가뭄으로 마르고 장마철 폭우로 토양이 씻겨 나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이 때 척박하고 건조한 토양에서 잘 자라면서 흙을 비옥하게 개량해 주는 나무를 먼저 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다행히 선배

들은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싸리 등을 골라서 성공적으로 사방사업(砂防事業)을 완수하였다. 위의 나무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쓸모없는 나무”로 잘 못 인식되어 있으나, 흙을 단단하게 붙잡아 토사유출을 막고, 뿌리혹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어 질소 비료를 스스로 만들어 척박한 땅에서 자라면서 후에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비료목(肥料木)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쓸모 있는 나무”로 전문가들은 모두 알고 있다. 특히 아까시나무는 1960년대 농촌의 연료, 목재, 토끼와 염소의 녹사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연간 1,000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며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아카시아 꿀”을 생산하여 양봉(養蜂) 농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효자나무”로 알려져 있다. 아까시나무의 목재는 나무 중의 나무라고 일컫는 참나무에 버금갈 만큼, 단단함과 잘 썩지 않는 등의 재질(材質)을 가지고 있어서 유럽에서 울타리와 실내 바닥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비료와 농약 없이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나무의 상징으로 알려져 최근에 EU(유럽연합)에서 “아까시나무연구소”를 설립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나는 요즘 국내에서 임업인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아까시나무의 개량 연구를 13년째 수행하고 있다. 꿀을 더 많이 생산하고 목재 가치가 큰 아까시나무로 개량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일본, 헝가리에서 품종을 도입하여 선발시험을 계속하였다. 초기 연구는 농림부 농림기술관리센터(ARPC)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쓸 만한 품종을 만들어 냈다. 꽃이 2-3일 일찍 피는 조기개화 품종(유니 아까시), 2-3일 늦게 피는 만기개화 품종(지니 아까시), 꿀이 2배 더 많이 생산되는 다밀성 품종(다니 아까시), 곧게 자라는 직립성 품종(서니 아까시)을 개발하였다. 조기 개화, 만기 개화, 및 다밀

성 품종을 함께 심으면 한 장소에서 꿀을 채집하는 기간을 6일 정도 연장하고, 꿀 채집량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다. 다행히 내가 방문한 북한의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요즘 아까시나무를 심고 있다고 한다. 내가 개량한 아까시나무를 소개했을 때 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남북간의 기술협력을 통해서 산림녹화를 이끌어 가자고 하였다. 처음 방문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거둔 셈이다. 평양 근처에서는 이미 분홍색이면서 꽃송이가 큰 “분홍아까시나무”를 가로수로 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내가 개량한 아까시나무가 북한에 심겨져 무럭무럭 자라서 척박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황폐한 산림을 푸르게 만드는 꿈을 한 번 꾸어본다. 환갑을 넘긴 이 나이에 인생의 황혼을 맞으면서 더 이상의 바람은 없다. 그저 죽기 전에 내가 태어난 고향 땅을 한 번 밟아 볼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나의 고향 북녘을 바라보면서 황해도 고향을 끝내 한 번도 가보시지 못한 선친을 문득 생각했다. 나의 고교시절 당시 인기가 많았던 공과대학을 갈 수 있었던 여건에서 이를 마다하고 무슨 애국자인 양 용기 있게 농대 임학과를 지원한 나를 선친은 못내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 그러나 내가 개발한 아까시나무가 황해도를 녹화시킬 것이라고 고한다면 선친은 지하에서나마 기뻐하실 것이다. 극복하기 어려운 이념을 뛰어 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같은 동포의 나라, 북한을 학문적으로 돕는 기회는 과학자에게는 또 하나의 보람된 일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관악통일산책 중에서 옮김〉
(<http://tongil.snu.ac.kr>)



양봉과 시인

아침

—매호리 시편3

이종만

밤이면 불빛만 남겨놓고
매호리는 죽는다
초롱초롱하던 별빛도
새벽이면 서둘러 돌아간다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매호리
매일 아침 부활한다

1톤트럭은
1톤만큼의 노래를 싣고
논으로 향한다
매호리 사람들 꿈은
어제보다 더 커져 있다
배추밭 고추밭도
어제보다 더 푸르다